

## 지역경제의 재구축: 슬로바키아의 산업전환과 지역개발

Smith, A., 1998, *Reconstructing the Regional Economy: Industrial Transformation and Regional Development in Slovakia*, Edward Elgar, 434쪽

이 승 철\*

역사적으로 자본발전의 동향은 연속적인 성장과 쇠퇴를 경험하고 있다. 이와 같은 장기주기 이론을 설명하는데 있어, 학제 및 학파간에 이루어진 일반적인 합의점은 초기 발전 모델의 위기로 인해 자본은 새로운 제도 및 사회적 구조와의 결합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는 과거 지속적으로 순환된 위기(crisis) 속에서 최근 혁신(innovation)을 통한 새로운 기술, 제도 그리고 조직적 전환을 기반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초석으로 삼고 있다. 실질적으로 혁신이라는 용어는 Christopher Freeman(1986, 1987)과 Carlotta Perez(1983)와 같은 네오 슈페테리안(Neo-Schumpeterian)에 의해 주장된 신기술의 발전과 제도 및 사회적 구조의 부조화로 야기된 위기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이해될 수 있다. 즉 기술, 제도 및 조직의 혁신을 통한 기술과 제도의 조화는 일국의 경제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오 슈페터 이론은 기본적으로 기술의 사회적 맥락(생산관계)과 기술의 변화(생산력)를 중심으로 한 생산양식에 초점을 두어 상이한 국가가 가지는 소비양식의 특수성을 무시함으로써 특정 공간이

가지는 사회적 관계를 간과하였다. 따라서 지역 혁신을 통한 안정 혹은 기회 창출의 국가균형발전 개념은 한국적 경제상황에서 다시 한번 고려되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 책은 중요한 함의를 가지고 있다.

이 책은 1989년 이후 동구 사회주의 국가들이 직면한 위기에 대한 산업전환 및 지역개발 전략을 장기적인 역사적 변화 및 지역 진화의 대비를 조절이론(regulation theory) 관점에서 설명함으로써 사회주의 국가의 전환경제에 대한 독창적인 지리학적 연구 방법론 및 이론적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책은 사회주의 국가의 지역적 진화를 이해하는데 있어 노동과정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산양식과 공간발전과정 간에 연계를 연구하기 위한 새로운 개념을 발전시켰다. 따라서 이 책은 동구 사회주의의 전환경제를 수반한 공간 경제 구조의 중요한 변화를 역사적 맥락에서 국가 사회주의적 생산양식과 소비양식의 분석에 기반한 불균등 발전에 대한 이론과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중요한 경제지리학 저서라 할 수 있다.

경제지리학적 관점에서 동구 사회주의국가, 특

\* (재) IT전략연구원 연구위원

히 슬로바키아의 전환경제 및 지역개발 전략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이 책은 서론을 비롯하여 4부 9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론에서는 동구유럽의 전환에 대한 지역적 질문과 산업변화, 지역불균등발전 그리고 발전양식에 대해 조절이론을 중심으로 이론적 접근방법을 제시하여 슬로바키아에서 산업재구조화의 과정과 지역불균등발전의 연계를 개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제1부(제2장)는 동구유럽 내에서 국가와 지역의 불균등과 동구유럽과 서구유럽의 지역 불균등을 검증하였다. 필자는 이와 같은 지역 불균등을 1989년 이후 새로워진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동구와 서구의 지역 불균등성이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 줌으로써 지역불균등 발전에 대한 이해는 보다 광범위한 사회적 발전양식의 맥락에 기초해야 한다고 제시하고 있다.

제2부(제3~5장)는 슬로바키아와 전 체코슬로바키아의 국가 사회주의 발전양식과 지역개발을 다루고 있다. 제 3장에서는 후기 19세기와 초기 20세기에 헝가리,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 자본의 특정 지역 유입에 의해 형성된 지역 불균등 산업발전을 외부 종속적 모델로 설정하여 슬로바키아의 1차 전환으로 정의하였으며, 또한 세계 2차 대전 이후 국가사회주의 발전양식의 결과로 나타난 자본주의 불균형 산업발전의 근본적인 변화를 제 2차 전환으로 정의하여 국가사회주의 축적의 순환적 본질을 중심으로 강제된 산업화(forced industrialization)와 외연적 발전양식에 대한 내용을 언급하고 있다. 제4장은 중앙 집중적 관료 조직 시스템 하에서 슬로바키아의 강제된 산업화를 통해 발생한 지역전환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슬로바키아의 국가 사회주의 발전양식은 1945년 이전에 불균등 자본주의 발전의 영향으로 나타난 지역경제의 불균등성을 감

소시켰지만, 역으로 계획경제로 인해 하나의 특정 지배 생산부문으로 구성되고 수직적으로 조직된 노동분업의 형태를 나타내는 불안정한 지역산업경계를 창출하였음을 검증하여 슬로바키아의 국가 사회주의 산업화의 본질에 대한 내용을 다루었다. 제5장에서는 슬로바키아에서 국가 사회주의 모델의 상이한 경로 의존적 궤도를 밝힌 Martin과 Liptovsky Mikulas 두 지역의 발전 경험을 비교 분석하여 1990년대 지역 재구조화 과정을 위한 중요한 함의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제3부(제6~8장)는 새로운 지역불균등 발전 형태의 출현과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전환을 다루고 있다. 제6장에서는 슬로바키아의 공간경제가 소수의 우위지역(regional winners)과 다수의 열위지역(regional losers)을 중심으로 파편화되어 가는 원인을 자본주의로의 전환에 두고 있으며, 특히 민영화, 해외직접투자, 중소기업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한 세계화된 새로운 발전양식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7장에서는 슬로바키아가 자본주의로 전환함으로써 지역경제의 시장화 및 세계화를 촉진시키고 있으나, 지역별로 상이한 역할은 새로운 형태의 지역불균등 발전을 창출하고 있음을 기술하고 있다. 제8장은 국가 사회주의의 조절기제와 전환 전략의 교차점에 초점을 두어 생산의 사회적 관계(생산양식과 소비양식)의 변화를 중앙집권적 관료주의 붕괴, 조직의 독립과 민영화를 통한 기업의 탈국가화, 민간 중소기업의 활성화 기업의 사례분석을 통하여 지역적 전환에 끼치는 영향을 다루고 있다.

제4부(제9장)는 대안적 발전궤도에 대한 초기 질문으로 돌아가서, 아직까지 국가 사회주의의 몰락, 즉 전환에 의한 사회적 관계의 변화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확실한 발전모델은 출현하지 않았지만, 보다 효율적인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선

국가 사회주의의 중요한 유산을 인식하여 보다 근원적인 민주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제시한다.

기존의 조절이론에 기초한 지역 연구는 주로 선진 자본주의 국가 내에서 국제, 국가 그리고 지역적 조절양식과 축적체제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었던 반면에 이 책은 조절이론의 연구영역을 국가 사회주의 발전양식의 변화에 따른 지역전환에 대한 연구로 확장하였다는 점과, 사회주의 전환경제를 조절이론에 기반하여 지리학적으로 조망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동구유럽의 새로운 지역의 형성과 미래에 대한 함의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동구유럽지리

강의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지역발전론 강의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서 최근 지역에 혁신시스템 구축하여 불안정한 지역의 발전을 안정화 시켜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책은 지역적 특수성을 기반으로 혁신을 유발할 수 있다는 측면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지역의 생산양식에 배태되어 있는 소비양식을 간과하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책은 동구유럽의 전환경제 및 지역개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 지역혁신 정책을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도 한번쯤은 읽어보아야 할 책이라 생각한다.